

민주 주류-비주류 경선 갈등 커지나

지방선거 기획본부에 정세균계열 대거 포진

최재성·강기정 주요 보직 맡아 광주·전남 배심원제 확대될 듯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이끌 예정인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에 주류 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추후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더욱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주도해온 최재성·강기정 의원이 각기 지방선거 기획본부의 경선과 조직 부분을 맡음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확대 적용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기획본부 부분부장 등 분야별 책임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5일 공동본부장에 이경석 사무총장과 김민석 최고위

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부분부장에 오영식, 윤호중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전략분야에는 전병현 의원과 오영식 전 의원을, 재정 분야 이경숙 전 의원, 조지 분야 강기정 의원과 신문식 부총장을 선정했다. 정책 분야에는 변재일 의원, 홍보 분야 정범규 의원, 연대 분야 윤호중 전 의원, 경선 분야 최재성 의원, 여성 분야 김상희 의원, 교육선거 분야 유기홍 의원 등을 책임자로 선정했다.

지방선거 기획본부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승리전략 및 준비대책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획본부 부분부장단과 분야별 책임자가 대부분 주류 층 인사들로 채워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선거 경선 방법 등을 놓고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기획본부 인선을 보면 사실상 당내 주류 층이 지방선거를 독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도 "기획본부 인선을 위임해달라고 하더니 주류 층 인사들로 채워진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기정, 최재성 의원이 기획단의 주요 보직을 맡은 것을 볼 때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확대 적용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지방

선거 기획본부에 주류 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등 민주당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확대 적용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을 의결한 김성호, 이상열, 안영근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복당을 신청한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에 대한 복당은 조속히 처리한다는 권고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복당 승인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게 될 것은 물론 특단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복당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당 내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영택 의원 광주시장 불출마

"의원으로 선택해 준 유권자 뜻 받드는게 가치 있는 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 갑·사진)이 무려 5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광주광역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되고 침체된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시장 도전을 신중히 고려해 왔다"며 "그러나 진보적 가치 실현과 정권 탈환에 전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판단,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시장에 도전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조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데다 최근에는 '광주시장 출마 결정 시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제기한 바 있어 이날 때늦은 '불출마 선언'은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조 의원이 출마한다면 광주지역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광주시장 도전에 나선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얹힐 것으로 예상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희정 최고 충남지사 출마 선언

의 두 손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 열린 안희정(기운데) 최고위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메니페스토 대상 '우수상'



구와 화순·담양·곡성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본원은 현재 담당면적이 약 3천800㎢, 인구가 약 180만 명에 이르는, 1994년 신축된 청사가 재판부 증설, 민원 평의시설 확충 등으로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왔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기원)는 27일 올해 약속대상 심사에서 18대 의원 총선 공보물에 실린 공약 처리 상황 등을 평가한 결과

박 의원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기원)는 27일 올해 약속대상 심사에서 18대 의원 총선 공보물에 실린 공약 처리 상황 등을 평가한 결과

박 의원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룸에서 열린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공정 경선 관리 도당위원장 후임자 없소?

지사 출마 주승용 의원 31일 사퇴

민주당, 마땅한 적임자 없어 고민

전남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의 미망한 후임자가 없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한 당규에 따라 주 의원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규 22조 5항은 '시·도당위원장이 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거일(6월2일) 120일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도위 원장직을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주 의원은 애초 도당위원장의 궐위(闕位) 시 수석부위원장이 업무

를 승계한 관례를 들어 우윤근 의원의 대행체제를 고려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새 도당위원장은 도지사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총 책임은 중앙 당이 맡음)해야 함은 물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3선 이상 급인 박상천·김성곤·김효석·유선호·이낙연 의원 등이다.

이중 박 의원과 김효석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당 위원장 급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나머지 3명의 의원은 특정 지사 후보와 가깝거나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성곤 의원은 주승용 의원과 지역구가 같은 여수이고, 유선호 의원은 박준영 지사와 고향(영암)이 같다. 이낙연 의원은 이석형 전 학평군수와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다.

때문에 재선의 박지원, 서갑원, 우윤근, 최인기 의원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박

지사와, 우 의원은 주 의원과 각각 떼어놓을 수 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 의원은 재판 중이어서 도당위원장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중부권인 나주가 지역구 이자 비교적 중립적인 쪽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통합 직전의 구민주당에서 도당위원장은 맡은 경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마땅한 후보자가 떠오르지 않자 김영록, 이운석 의원까지 도당위원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초선이라는 점이 문제다.

김효석 의원은 "조만간 전남지역 의원들이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출 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매출 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매출 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 단위)
대출 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 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시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낮은 신용도를 염두에 두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010-7167-3838

다산공인증개사

한 010-7154-6996

한 062-972-8004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등자 6억

▶ 상가매매(첨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권영업종 : 의류, 편의점, 안경, 푸드

▶ 창고 및 공장용지

- 서구 복진동 184평

- 평당 140만

▶ 서구 덕흥동 900평

- 평당 85만

▶ 서구 우산동 550평

- 평당 65만

▶ 광산구 수완동 900평

- 평당 100만

● 구함 ●

• 골프 연습장 부지 - 광주권

• 가스총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지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 부동산 매각,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로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바다공인증개사

한 (063)581-5909

한 010-8004-5900

(진복 세탁·새만금 진료센터)

세만금·변사·고시포·죽포·상록·모험·수목경기장지의 투자 협약 협약

▶ 팬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150평 건물 120평

- 매가 6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0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팬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비단과 같은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팬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

▶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로 편선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